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노사정,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 타결
- IMF, 中 경제 버블 붕괴 가능성 경고

경영 노트

- 미국 증시 상장 외국기업의 '회계 비상'

사회 트렌드

- 학연, 지연보다 '인터넷 인맥'
- '의료 관광 대국' 꿈꾸는 인도

저널 브리프

- 제2의 닷컴버블 오나

洗心錄

- 타고난 보스

□ 노사정, 노사 관계 로드맵 협상 타결

-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유예, 필수 공익 사업장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을 타결함
 - 노사정은 그동안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유예기로 합의함
 - 또한 노동 쟁의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現 철도, 전기, 병원 등을 포함하여,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함
 - 한편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적시된 서면 통보를 의무화하기로 함
-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향후 노사 관계에 있어 대화와 양보가 중심이 되는 선진 노사 문화 정착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IMF, 中 경제 버블 붕괴 가능성 경고

-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정부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긴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버블 붕괴 국면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 올해 중국의 1~8월중 무역수지 흑자는 957억 달러로 2005년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1,019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중국 내 유동성 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특히 8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올 들어 가장 최저 수준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전년동월대비 21.5%의 과열 양상을 기록함
 - IMF는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를 통한 위안화의 빠른 절상, 금리 인상을 통한 투자 및 부동산 과열 억제 등을 제시함
- 향후 중국 경제가 버블 붕괴가 되지 않더라도 경기 연착륙이나 경기 하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對 중국 수출 경기 부진, 對 중국 해외 투자 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미국 증시 상장 외국기업의 '회계 비상'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1,200여개 미국 증시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 관리를 강화
 - 美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은 2006년 회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 강화된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회계관련 비용이 급증할 전망
 - 개정 회계 기준의 내용은 이사회 회의에 감사 참여, 재무제표에 대한 CEO 및 CFO 서명 의무화, 모든 회계 관련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임
- 외국 기업들에게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404조'의 투명성 확보 문제
 - 사베인-옥슬리법 '404조'에 의하면 경영진이 회계 및 내부통제시스템과 회사 자산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SEC에 보고한 후 회사 자체의 비용으로 개선해야 함
 - 2005년도에 GE(3,300만 달러), 글락소스미스클라인(440만 달러), 프랑스의 라파주(1,280만 달러) 등의 기업들이 404조에 대비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강화에 많은 비용을 사용함
- 미국 증시에 기상장된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자금 조달을 예정 중인 기업들은 보다 강화된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확보가 필요
 - 현재 미국내 상장된 국내 기업은 한전, 포스코, KT, SK텔레콤 등 11개사로 내부회계통제 시스템 감사에 대응하여 이미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함
 - 그러나 아직 404조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며, 회계 능력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뿐만 아니라 국내 회계 법인에도 악영향이 우려됨

< 사베인-옥슬리법의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자본금 7,500만 달러 이상	
적용 시기	2006년 7월 15일 이후 사업보고서(재무제표) 제출 기업	
항목	내부 통제	내부 통제에 대한 경영자 보고서 의무화 외부 감사인의 감사 및 내부 고발자 보호 의무화
	공시 기준	최근 발표된 모든 공시 내용 보관 의무 부여
	감사인 독립성	감사의 이사회 등 기업 내부 회의 참석권 부여
	회계 감독	CEO/CFO의 재무제표 서명, 회계시스템 점검 및 시정 의무화
	기타	임원 및 이사에 대한 개인 대출 금지

□ 학연, 지연보다 '인터넷 인맥'

- 최근에는 20~3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인맥' 형성 자체를 목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인기를 끌고 있음
 - 그간 인터넷 커뮤니티는 특정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오프라인 모임을 옮겨온 것이거나, 같은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돼 왔지만, 최근 들어 인맥쌓기 자체가 목표인 커뮤니티가 늘고 있음
- 인터넷 세대를 중심으로 인맥 커뮤니티가 인기를 끄는 것은 동창회, 향우회 등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인맥쌓기에 대한 거부감이 큰 반면,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인적 네트워킹이 훨씬 자연스럽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사례로는 싸이월드의 '직장인 인맥 만들기(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는 모임)' 클럽(makehost.cyworld.com)은 10일 현재 회원 수가 2만 2,200여 명에 이른다고 함

□ '의료 관광 대국' 꿈꾸는 인도

- 인도가 높은 의료 수준과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의료 관광 대국을 꿈꾸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10년 의료관광객 100만 명 유치로 목표를 세웠는데, 연간 100억 루피(2조 1,000억 원)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 함
 - 이를 위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1년짜리 장기 의료 비자를 발급하는가 하면 의료기관 품질 향상을 유도할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의료 엑스포를 여는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홍보 전략을 마련함
- 인도 병원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미국의 1/10, 영국의 1/7) ▶거대한 의료 인력 풀 ▶ 비자 등 방문 절차 간소화 ▶ 요가 등 전통 치료술 병행 ▶영어 사용 가능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됨
 - 인도 병원은 지금까지는 의료시설이 충분치 않은 중동과 아시아의 부유층을 주고객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지나치게 비싼 의료비로 고민하는 미국과 유럽 중산층으로 시장을 넓힐 태세임
 - 미국 병원들도 높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태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려는 환자를 잡기 위해 자구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함

□ 제2의 닷컴버블 오나*

■ ('웹2.0' 붐 고조) 최근 미국에서는 기존 미디어 기업들이 광고 매출 개선을 위해 '웹2.0' 기업과의 M&A를 증대하는 등 '웹2.0' 붐이 고조됨

- (기존 미디어 기업의 '웹2.0' 기업 M&A 증가) 뉴스코프, 소니픽처엔터테인먼트 등 기존 미디어 기업과 마이스페이스닷컴 등 '웹2.0' 기업 간 M&A가 증가하고 있음

• '웹2.0'의 개념: 기존의 포털 사이트 개념인 '웹1.0'이 일방적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는 달리 '웹2.0'은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의 대표적 업체로는 마이스페이스닷컴, 싸이월드 등을 들 수 있음 (최근 야후, 구글 등도 포털 사이트 중심에서 '웹2.0'의 기능을 보완)

• '웹2.0' 기업 인기 상승: 네티즌이 적극 참여해 만드는 콘텐츠 위주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마이스페이스닷컴, 싸이월드 등 '웹2.0' 기업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

• M&A 사례 : 뉴스코프의 미국판 싸이월드인 마이스페이스닷컴 매수, 소니픽처엔터테인먼트의 동영상 공유 전문 사이트 기업 '그루퍼 (Grouper)'매수 등 기존 기업과 '웹2.0' 기업 간 M&A가 증가

- (미디어 기업의 '웹2.0' 기업 매수 배경) 최근 '웹2.0' 기업 사이트로 고객이 몰리면서 광고 유치에 유리해진 '웹2.0' 기업을 기존 미디어 기업들이 광고 매출 한계 극복을 위해 매수하고 있음

■ (전망) '웹 2.0' 기업들은 장기적인 수익 모델 개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최근의 '웹2.0' 기업 붐은 버블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웹2.0' 기업들의 문제점) '웹2.0' 기업들 중 상당수는 장기 수익 모델 없이 호기심 자극으로 초기에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여 거액 광고 유치 및 회사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만을 기대하고 있음

- (주요 기관들 '웹2.0' 버블 우려)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은 '웹2.0' 기업 사이트들에서 무료 정보 교류는 가능하나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제품이 없는 등 장기 수익 모델이 없어 성장의 한계로 지적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09.18)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타고난 보스

기업 문화에 관한 전문 컬럼니스트인 데일 도튼(Dale Dauten)은 그의 저서에서 『타고난 보스』(The Gifted Boss)(1999)에서 ‘타고난 보스’와 ‘평범한 보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평범한 보스는 그냥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좋은 보수를 주면서, 그러나 타고난 보스는 특출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도전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우수한 팀원에 대한 외부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부서를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 방도를 늘 생각한다.
- 평범한 보스는 규칙과 윤리를 명백히 정해 놓는다. 타고난 보스는 규칙은 별로 없고 대신에 고도의 업무 기준만이 있다.
- 평범한 보스는 관료주의의 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반면 타고난 보스는 관료주의의 틀을 벗어나 어떻게 일할지를 알고 있다.
- 평범한 보스는 ‘해답’을 주려고 한다. 반면 타고난 보스는 ‘질문’을 한다. 팀원들로 하여금 해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해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평범한 보스는 부하의 시간과 노력을 산다. ‘팀원’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보스는 부하의 ‘도움’을 산다. 바로 ‘동지’를 찾는다.
- 평범한 보스는 당신을 조금씩 키운다. 반면 타고난 보스는 당신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 상승시켜 준다.

당신은 ‘평범한 보스’인가 아니면 ‘타고난 보스’인가? 당신의 보스는 ‘평범한 보스’인가, ‘타고난 보스’인가?

“사람은 흔히 자기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간주한다.”

- 쇼펜하우어 (1788~1860) : 독일 철학자